

똥이에게

똥이야, 네가 만든 통통이 인형을 엄마의 줄
근갈을 더 편하고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었어.
나는 통통이가 진짜로 변신 할 줄은 꿈에도 상
상하지 못했어. 통통이가 마법을 부려서 엄마
마음에 속들 뿌려 주었거든. 그리고 지금쯤 통통이
인형은 엄마가 방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심해.
따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할게야.

아마도 저녁때 엄마가 다시 통통이 인형을
너에게 건네 주실 거야. 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 같으면 엄마에게 갖고 있으라고 말할 것 같아.
사실 난 아직 이런 일은 없었지만 나도 한
번이라도 엄마에게 변신 하는 멋진 속호신을 선
물 해 주고 싶어. 예전에 유치원에서 토끼 인형을 만든 적이
있었어. 그치만 네가 만든 통통이처럼 변신해서 엄마를 지켜
주는 힘은 없었어. 그래도 귀엽긴 했어.

나중에 나도 통통이 만드는 방법 좀 알려
줄래?

사랑해. 그리고 난 네가 참 장
수려워.

유다인 이.

